

2년 전 이태원 잇었나… 경찰이 막은 ‘충장 참사’

이태원 참사 2주기… 당신은 ‘안전’ 하십니까 <상>

충장으로 한복판 행사 인파 몰려 이동 불가능 ‘군중 유체화’ 현상 인파 흐름 유지 안전요원 2명뿐 서로 뒤엉켜 ‘밀지마세요’ 비명 신고 접수 경찰 행사 강제 중단

2022년 10월 29일. 우리나라에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상처가 남았다. 시민들은 2년간 유지됐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기대감에 부풀었고 수 천명의 청년들이 이태원의 좁은 골목으로 모여 들었다.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의 군중 밀집도는 가로세로 1m 안에만 16명이 있을 정도로 치솟았고 끝내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 직후 조직된 경찰청 특별 수사본부는 방대한 수사를 거쳐 참사를 책임 있는 기관들의 무책임한 대응에 따른 인재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안전 불감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좁은 골목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에 집회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턱 없이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가 방역 조치가 해제됐다는 특수성이 있었다고 치부하기엔 ‘폭염이 길어서’, ‘가을 날씨가 좋아서’ 등 명분이 달라질 뿐 중요한 건 군중인파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게 중요한 맥락이다. 이태원 참사는 남 일이 아니다. 평소와 같은 365일 중 하루였으며 청년들은 행사가 진행되니까 즐기러 갔을 뿐이다. 친구, 가족, 심지어 자신이 휘말릴 수 있었다. 전남일보는 2년 사이 군중인파 재난사고에 대한 대책,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한다.

편집자주

“밀어! 밀어!”, “아 좀 밀지마세요!” 2년 전 이태원 참사 당시 발생했던 모습 이 광주에서 재현됐다. 광주 동구 충장로 한복판에서 진행된 행사에 수천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인파 흐름이 멈췄다. 오도 가도 못한 시민들 사이에선 비명이 터져나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지만, 이를 통제하는 안전요원은 터무니 없이 적어 10·29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인근에서 ‘충장상권르네상스 라온페스타’가 열렸다.

해당 행사는 광주시와 광주시 동구, 광주시 도시공사가 함께 주최해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새롭고 특별한 이벤트로 시민들의 방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은 ‘K-POP 충장스타’ 경연대회 예선과 메인 이벤트인 ‘가을에 만나는 눈’ 콘셉트로 충장로 우체국 사거리에서 인공 ‘눈(雪)’을 뿌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포토존이 설치됐다.

문제는 행사가 충장로 우체국앞에서만 집중되면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좁은 골목에 군중이 대거 몰렸지만, 안전요원이 6명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경찰광봉을 흔들며 시민들에게 계속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안전요원은 2명 뿐이었다.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대통령 탄핵집회에는 10여명의 참가자가 있었음에도 경찰인력이 배치됐으나 수천명이 몰린 행사장에는 경찰이 없었다.

안전요원이 목청껏 “계속 움직여주세요”라고 외쳤지만, 무대에서 K-POP 노래가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려 퍼지면서 육성은 절대 전달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지난 26일 오후 6시께 ‘충장상권르네상스 라온페스타’가 열려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무대 진행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위험하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말하면서도 메인 이벤트가 시작돼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인공 눈이 뿌려지자 “모두 멈춰서 인증샷 한번 찍읍시다”고 말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충장로 진입로에는 행사가 진행돼 차량이 통제된다는 입간판만 있을 뿐 인파가 많이 몰려 혼잡할 수 있으니 우회를 요구하거나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등의 안내는 없었다.

통로도 정확히 정해지지도 않아 우체국 사거리 네 방향에서 몰린 사람들은 공연을 보기 위해 멈추는 사람과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기를 반복했고 끝내 인파 흐름이 멈추고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

2년 전 발생한 이태원참사의 직접적 원

인이 ‘군중 밀집도가 높아져 자의에 의한 거동이 어려운 군중 유체화 현상’이었던 점에서 충장로 행사 현장은 당장 ‘압사 참사’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무대가 낮게 설치된 것도 한 몫했다. 무대가 높으면 멀리서도 공연을 볼 수 있지만, 무대가 바닥에 설치되면서 가까이서 보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는 ‘밀고 나가지 않으면 꼼짝없이 갇히겠는데’, ‘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등 비명이 터져나왔다.

행사는 오후 6시10분께 수차례 신고로 뒤늦게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 강제해산 집행을 명령하면서 중단됐다.

경찰은 충장로 인근에서 행사가 열려 사람이 몰렸다는 것을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주최측은 경찰에 집회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문화행사’는 집회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행사가 가능하다.

주최측은 만약 방문객이 적어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사전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충장상권활성화 추진단 관계자는 “행사가 강제 종료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급히 회의를 진행했고,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경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럼에도 군중 흐름이 통제해 어려울 경우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아재개그였다”… 법원, “해임 정당”

직장 내 성희롱을 반복해 해임된 공공 기관 간부가 징계가 지나치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자신의 발언이 ‘아재 개그’였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재발 가능성과 피해자와의 분리 차원에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고 봤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씨가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무실·회의 장소 등지에서 다수의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해 센터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을 받았다.

A씨는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성희롱 발언으로 알려진 내용도 아재 개그 스타일의 가벼운 농담이었으므로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재 개그 스타일의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고 발언의 대부분은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그 내용은 한결같이 저급했으며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도 원고의 발언을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재단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했을 때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안전불감증 여전… 맥주빨리마시기 대회서 40대 쓰러져

체육대회에서 맥주빨리마시기 대회에 참가한 40대 남성이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여수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18분께 여수시 시전동 망마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A(40)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소속 봉사 단체에서 주최

한 체육대회에서 열린 맥주 빨리마시기 대회를 참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면서 다행히 A씨는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아 기자

“진실 향해 들불처럼” 광주서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제

어제 백운광장… 책임자 처벌 요구

10·29이태원참사 2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참사 희생자 159명을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제가 광주에서 열렸다. 추모제에 참석한 유가족과 시민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오후 1시59분 광주 남구 백운광장 시민의 숲 일대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와 10·29이태원참사광주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10·29이태원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렸다.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의미에서 행사 시작 시간을 1시59분으로 정했다.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모대회에는 희생자 고(故)이해린씨의 부친 이종민씨 등 유가족들을 비롯해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과 수많은 시민들도 함께해 추모열기를 더했다.

추모제는 개회식, 인사말, 추모사, 추모공연, 친구·유가족의 편지글 낭독과 다짐,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7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광장 시민의 숲 일대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와 10·29이태원참사광주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10·29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희생자 고(故)박초희씨의 모친 임나연씨가 추모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고(故)이해린씨의 부친 이종민씨는 인사말을 통해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소중한 가족이 왜 우리 곁을 떠났는지 알지 못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것을 예상하고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수많은 신고에도 왜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않았나”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이어갔지만, 책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유가족들의 마음에는 비수가 꽂혔다”며 “지난 9월 첫발을 땀 특조위는 어떤 방해도 없이 진상조사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희생자 유가족과 친구들은 그리움이 담긴 편지를 낭독하며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희생자 이해린씨의 동생 이해주씨는 해린씨의 친구가 작성한 편지를 낭독하면서 언니를 추모했다.

편지에는 ‘해린아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부를 수 있어 참 좋다. 체구는 작았지만 누구보다 강했던 너를 기억해. 나는 늘 바다같이 넓은 마음에서 흘러나온 너의 사랑을 느껴. 어떤 말을 전해야 하늘에 있는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희생자 고(故)김재강씨의 친구 김민아씨도 오열하며 “그날 이후 너와 나를 비롯한 친구들의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세상은 이러한 슬픔을 겪지 않는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먼저 떠난 곳에서는 아무 걱정 않고 스스로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지내길 바라. 많이 보고 싶다”고 전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